

“숨겨진 호남인재 어디 없소?”

평화당·바른미래 광주시·전남도당 지방선거 공천 본격화

평화당 광주 후보 공모…바른미래 광주광역의원 토론회로 선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4일 전남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와 광주·전남 공동개편대회에서 공천 일정과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제1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1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선발전에 토론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우선추천제 시행에 따른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당은 조만간 비례대표 청년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토론회 배틀 형식의 선발전을 열 예정이다. 토론회는 지역현안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이 1대 1 대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보자간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뽑아 비례대표 최우선 순위

(여성 1번·남성 2번)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 청년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인 만큼 평가단도 청년 중심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광주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청년 선발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후보자 기근에 시달리는 전남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전술적으로는 기초의원 공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엔 단독후보를 넣으려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1일 외부 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 구성을 완료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평화당 광주시당은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장병안·전정배·김경진 의원 등 당내인사 6명과 조선대 윤종록 교수 등 외부인사 5명 등을 위원으로 선

임했다. 공천관리위는 앞으로 광주 5개 구정장과 시·구의원을 공천한다.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12일 후보자 추천 공모 기간을 거쳐 오는 21~22일 후보자 추천 면접 심사를 한다. 당선 가능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주민소통능력, 후보자의 품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선을 원칙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지역 1차 공천 확정자 40명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중 목포시장 후보에 박홍을 현 시장, 해남군수에 명현관 전남도의원, 함평군수에 이용행 군의회 의장, 화순군수에 임호경 전 군수를 후보로 확정했다.

광역의원은 목표1선거구 강성취, 목표2 이방수, 목표3 고경석, 목표4 김탁, 목표5 배종범, 순천4서광철, 고흥2 정순열, 장흥 2 김광준, 해남1 최재희, 해남2 박성재, 완도 2 김동준, 진도 김희동, 함평 이재인, 구례 고택운 후보를 확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제 한술밥”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안 원내대표,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교섭단체 4당 체제로…범진보 vs 범보수 팽팽

(145석) (148석)

평화·정의당 제4교섭단체 출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제4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을 2일 공식 출범시키면서 국회 원내 구도는 이른바 ‘범(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뉘게 됐다. 현재 원내 293석 가운데 범보수는 148석, 범진보는 145석으로 비교적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범진보 진영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 평화와 정의(20석), 민중당 김중훈 의원,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용

호, 손금주 의원 등을 아우른다. 반면 범보수 진영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으로 분류된다. 의견상 범보수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밀하게 보면 범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 ‘자진탈당시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이 묶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으나 정치 행보는 평화당과 함께 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고려하면 거꾸로 범진보가 148석, 범보수가 145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한쪽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만큼 제3·4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현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평화와 정의’가 공식 출범하면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등의 자리에서 든든한 ‘우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들을 하나로 묶어 분명한 여야 대결 구도를 그리려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이용섭 “금호타이어 정상화 합의 환영”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와 조합원의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섭 후보는 “노조가 지난달 30일 법정관리 직전 정부와 재관단의 조건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해의 자분 유지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용하는 것에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블루스타의 기술력 유출과 인력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수자금 회수, 그리고 공장 폐쇄 우려 등으로 이어지는 ‘묵튀’ 논란에 대한 철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동협력 방안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발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 구도심은 도시재생이 진행되면서 저가 상층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전 상가소유주와 임대인, 공공기관이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협약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이 임대상가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노동부지사 도입 등 노동정책 발표



이성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일 노동부지사 도입 등 전남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산업현장과 다양한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랑받아야 한다”며 “노동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공무원 법제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부지사 도입·노동국 신설 등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노동회관을 건립해 비정규직센터·건설노동자 일자리센터·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일자리 플랫폼 등을 총괄 지원하는 노동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금호타이어 노조 아름다운 양보 존중”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의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파국이 아닌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상생을 선택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협력업체가 280여 곳에 이르는 광주·전남 경제 버팀목인 금호타이어가 회생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노조의 결단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기술유출 및 투자약속 등 대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더블스타가 약속한 투자와 고용보장, 독립경영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소방관 출동요청 기준 강화해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의 재선거 예비후보가 1일 “최근 충남 아산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 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제도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더 많은 봉사, 더 큰일을 할 사람들이 허무하게 희생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생활안전분야 출동 요청 기준 적용이 조금만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 생활안전분야 출동 요청으로 정작 필요한 긴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평화당 광주 서갑 지역위원장 임명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1일 “최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광주 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직강화특위의 리더십, 지역 기반, 당 정체성 부합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원로당원, 시구의원 등과 긴밀히 상의해 조속히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대위 체제로 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가 팀 플레이 선거운동을 통해 광주 서구 갑에서부터 민주평화당 승리의 녹색 태풍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시국회 돌입…여야, 개헌·추경·북핵 혈투 예고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쟁점이 있을 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성적표는 6·13 지방선거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는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태세다.

더욱이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회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

12월에는 대정부질문이 있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에도 합의한 상태.여야가 점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개헌 문제는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4일까지는 국회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을 놓고도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일정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1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2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부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A.P.T·주택·공장·기타 등

- 1)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9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2)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9천3백 → 최저 1억7백
- 3)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4)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5)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6)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7)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8)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9)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10)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1)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2)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3)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 1)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2)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